

# 여야, 특검 도입·국정원 개혁 '난타전'

## '김용관 무죄' 여파...대선개입 의혹 공방 격화

### 박대통령 '통일대박론'·'북한인권법'도 쟁점

#### 국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

국회는 10일 정중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김용관 전 서울 지방경찰청장에 대한 1심 무죄판결 이후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야당의 특검 주장과 국가정보원 개혁 방향 등을 놓고 난타전이 벌어졌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과 북한인권법 등도 쟁점이 됐다.

우선 새누리당은 특검 도입이 '삼권분립 부정', '국정 발목 잡기'라며 일축했으나 민

주당은 "특검 도입이 민심"이라며 정부와 여당에 수용을 요구했다.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합법적 감청권 등 국정원 기능강화에 초점을 뒀으나 민주당은 비대한 국내 파트를 줄이는 쪽에 방점을 찍었다.

첫 질문자인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국가기관 대선 개입이라는 엄청난 사건에 대한 의혹이 앞으로 국민여론을 분열시킬 것"이라며 "박 대통령에게 부담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애초

김 전 청장을 기소할 검찰을 영웅시했던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 결과를 못 믿겠다고 특검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자기모순이자 자가담화"라고 비판했다.

'통일대박론'과 북한인권법 등과 관련, 여야는 약간 다른 시각을 보였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통일이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대한민국을 세계의 중심 국가로 우뚝 세우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통일은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면서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통일대박론에는 과정이 없다"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통일은 대박이 될 수도, 쪽박이 될 수도"라고 지적했다.

북한 인권과 관련해 북한이탈주민 출신인 새누리당 조병철 의원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북한인권재단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북한의 자유와 인권이 회복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북한의 인권개선 필요성은 인정했으나 "상호 신뢰가 있어야 인권이나 민주화 요구가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북한은 귀를 닫고 반발할 것"이라고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는 추측이 있다"는 민주당 문병호 의원의 질의에 "그런 게 진행되는 것은 없다"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북한의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5·24조치에 대한 해제 또는 변화 요구에 대해 "5·24조치는 천안함 폭침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취해진 조치"라면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박대통령 "공공 노조 개혁저항 용납못해"

### "방만경영도 책임 물을 것"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해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은 심히 우려되고 국민께서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은 어려움에 허리를 굽혀야 한다"며 공공부문에서 방만경영을 유지하려고 저항한다면 국민에게 그 실태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특히 "변화의 길에 저항과 연대, 시위 등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공공기관 노사가 만들어놓은 이면합의를 놔두고서는 진정한 정상화는 불가능한 만큼 이면합의를 통해 과도한 복지혜택을 제

공하는 관행은 이번에 철저히 뿌리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과거 무리하게 4대강 사업 등 정부의 정책사업과 전이행정을 추진하면서 부채를 떠안게 된 것은 사실인데 이런 부분도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통령은 "소치 올림픽이 끝나면 이젠 평창이다. 전세계 동계 스포츠의 관심이 평창을 향하게 될 것"이라며 "평창이 성공하려면 범국가적 지원을 펼쳐야 하는 만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대회 지원단을 본격 가동해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비서실 내에서도 관련 수석이 TF를 구성해 여러 수석실이 협업을 통해 점검할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특검 수용하라"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 수용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신당' 새정치 회의 인철수, 송호창 의원과 윤여준, 윤장현, 김홍석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새정치추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여야,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의혹 민주당 의원 소환 공방

여야는 10일 국가정보원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의혹과 관련, 소환에 불응한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재차 소환을 통보한 것을 두고 공방을 주고 받았다.

새누리당은 "(소환 불응 민주당 의원들의) 오만불손한 행태"라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적반하장"이라고 맞받았다.

새누리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해당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민주당 역시 비호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검

찰 출석 여부가 민주당 혁신의 진정성과 혁신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용관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을 비판하면서 "검찰은 진실 은폐로 모자라 (민주당에) 책임을 덮어씌우기까지 한다"고 말했다. 양승조 최고위원도 "김 전 청장의 무죄가 선고된 지 24시간 만에 민주당 의원에게 소환이 통보된 것은 박근혜 정부의 적반하장식 반격"이라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야권 '특검연대' 카드는 지방선거용"

### 새누리, '김용관 무죄' 관련 야당 공세 강력 비판

새누리당은 10일 김용관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1심 무죄 이후 대선 개입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야당에 대해 '사법부 무시',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또 야당이 '특검 연대' 카드를 만지작거리자 '지방선거용'이라고 해기를 박으며 명분 허물기에 나섰다.

황우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과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자존심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사법부와 검찰권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안 의원과의 연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쇄신과 새정치에 걸맞지 않은 야권연대의 노림수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태도는) 사법부 판결에 압박을 가하려는 알박한 의도라는 것을 국민이 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삼권분립의 원칙이 무엇인지 알기는 하는 것이지 모르겠으며, 자신만 정의고 절대 선이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기춘 의원은 "기소할 때만 해도 소신 수사라고 격려하던지 정작 1심 법원이 무죄판결 내리자 태도가 돌변했다"면서 "아울러 안 의원이 '납득 안 되는 판결'이라고 했는데 일천한 지식과 경박한 행동이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내 편에 유리하면 정의롭고, 불리하면 불공정한 판결이구나 유치원에서라도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면서 "자신만의 잣대로 정의를 재단하고 황당무계한 초법적 생떼를 부리는 민주당은 신이 내린 정당이나"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민주 "특검 관철, 당 사활 걸린 중대 문제"

### 의총서 대여 압박수위 높여... 지도부 책임론 거론도

민주당은 10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특별검사 도입이 당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는데 인식 하에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집권세력이 정치권력을 총동원해 안하무인식 수사방해를 함으로써 이와 같은 재판결과를 끌어내는 데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무리수야말로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지름길을 뚫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대외공세를 폈다.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의 특검 반대에 대해 "역사 앞에, 정치적 진실 앞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공당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특검 관철 방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온도차가 감지됐다. 당내 강경파를 중심

으로 일부 의사결정과 연계의 포함한 강경 투쟁을 촉구하며 지도부 책임론까지 거론하고 있다.

박병계 의원은 이날 비공식 대책회의에서 오는 18일로 예정된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특검 도입을 연계시켜 정부·여당을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다른 의원들과 논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의원은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올린 글에서 "특검을 놓고 백척간두의

결기있는 싸움을 해야 하는데 지도부의 행보는 너무 안일하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의총에서도 이런 내용으로 지도부를 강력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자신의 트위터에 "특검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장관 해임건의안만 제출하면 끝인가? 무죄 나오니 말로만 특검하겠다고... 대표 무어하면 모든 것 다 되나?"라는 글을 올렸다.

이석현 의원도 트위터에서 "오늘 긴급의총, 지도부 비판이 뜨거운 가운데 설 훈의원이 김한길 지도부가 직을 걸고 특검을 추진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면 관철되든(든) 안되든(든) 국민이 민주당을 이해할 거라고?"라고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公告

### 利川徐氏 尙書公 大同譜 編纂

(이천서씨 상서공[감무공] 대동보 편찬)

壬子譜 (1972년 발간) 이후 42년 만에 대동보를 편찬 합니다

1. 책으로 된 대동보는 이번이 마지막이오니 후손들은 빠짐없이 참여 바랍니다.
2. 2011년말부터 공고(홍보)를 하였으며 2014년 3월 30일 수단 접수를 마감 합니다.
3. 아직까지 접수 못 한 종친에게 널리 알려 편찬에 적극 참여토록 협조바랍니다.

**兵部尙書公 編纂事務所**

서울 TEL. 02-793-8252 FAX. 02-795-1831  
광주 TEL. 062-672-2002 FAX. 062-672-2001

## 국가/공/인 한문지도사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생 모집

① 연수일정 (2014년 제12기)

- 개강일시: 2014. 3. 3(월) 초급아간 18:30 중급아간 18:30
- 개강장소: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2014. 2. 3(월) ~ 2014. 2. 28(금)
- 수업기간: 2014. 3. 3(월) ~ 2014. 6. 20(금) 총 90시간)
- 수 강 료: ₩360,000
- 모집인원: 초급 아간: 30명(민간자격) 중급 아간: 30명(국가공인자격-민간자격도 동시취득)
- 기초가 부족하면 초급반에 지원하되, 수료시 중급반에 자동 진급하고 초급반 수료 정도의 기초실력이 인정되는 자는 중급반에 지원 할 수 있음
- 수업시간: 매주 월요일, 금요일 초급 · 중급 모두/18:30 ~ 21:30(3시간 수업)
- 수료 후 특전
  - 초급 · 중급 연수과정 수료시 / 총장 발급 수료증 수여
  - 초급 수료시 / 한국국공립대학 평생교육원 협의의 시행 한문지도사 시험 응시
  - 중급 수료시 / 국가공인 2급이상 한문지도사 시험응시 / 국가 공인 기관 시행
  - 연수과정 중 / 국가공인 한자 급수 취득 기회 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및 한문학원 개설 가능
  - 노인 복지 및 각종 사회복지기관 강사 취업 가능
  - 초 · 중등 각급학교 방과후학교 한문강사 취업 가능

② 원서교부 및 접수처(토일 공휴일 휴무)

- 전 화 (062)530-3873-3876
- 담당교수 H.P 010-2611-1171, 010-8712-1378
- 광주은행 : 074-107-004114(예금주:전남대 평생교육원)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CENTER

http : //sle.jne.go.kr

## 도대체 스피치 말을 어떻게 잘 할수 있을까?

http://www.kleader.kr

초 · 중 · 고 · 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어머니 스피치 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취업을 맞출 지원하는 **면접 준비 실전과정**

성공을 부르는 **말하기 기술 스피치 리더쉽 과정**

**명강사 육성과정**  
강의 스킬을 배워서 강사활동을 하실분

**강사 파견 업무**  
각 분야별 명강사 파견에 드립니다.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062)222-2255 / HP. 010-9441-7000

전화 문의하신편 지체한 안내문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1인당 예금비과세 3,000만원**  
(생계형 / 세금우대 별도)

**대출한도 25억원**

한도는 높게 ▲ 최대 ~80%  
금리는 낮게 ▼ 최저 4.3%~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공동본점 | 금호지점 | 풍암지점